

# 여보, 제 수줍은 그리움 보고 계시지요?

## 故 박권상 선생 부인 최규엽 여사 첫 전시회 열어



오방 최흥중 목사의 손녀 최규엽(왼쪽) 여사와 고(故) 박권상 전 KBS 사장.

“박권상씨, 당신, 지금 여기에도 와 계시지요? 박권상씨 사랑해요.”

한국 언론계의 큰 별이었던 고(故) 박권상(전 KBS 사장) 선생의 부인 최규엽(82) 여사는 지난 4일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한 통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평생 힘든 시간을 함께 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다.

오방 최흥중 목사의 손녀이기도 한 최 여사는 지난해 2월 남편을 떠나보내고 깊은 허탈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100여 일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는 큰딸 박소희(미국 밴더빌트대학교 교수)씨의 권유로 붓을 들었다. 여든을 넘긴 나이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남편을 회상하고, 허탈감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최 여사는 이날 그동안의 결과물들을 선보이는 생애 첫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수줍게 피어나는 은빛 그리움’을 주제로 최 여사가 수채물감으로 담은 꽃과 자연풍경 등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날 전시 개막식에는 최 여사의 동생인 최협 전 전남대 교수와 박권상 선생의 후배, 지인 등 박권상기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는 최 여사는 7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남 앞에 나서서 것을 싫어하는데, 일을 크게 벌여놓은 것 같아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최 여사는 1980년대 중반 남편과 함께 그림을 배우러 다녔던 기억을 떠올렸다. 박권상 선생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동아일보 논설주간으로 신군부의 검열에 맞서 5일간 사설을 게재하지 않고 저항하다 해직된 이후였다.

“사실, 그림이 처음은 아니예요. 남편은 중학교 때 미술부장을 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 밑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그림에 대한 꿈을 접었었죠. 그래서 남편

작년 남편 잃고 힘들 때 딸 권유로 다시 붓 잡았

처음 그림 그린 건 5·18 신군부 저항하다 해직된 남편과 함께

19일까지 담양 대담미술관



박권상 선생이 그린 최규엽 여사의 초상화.



외손자 안호 애글리가 그린 박권상 선생의 초상화.

은 취미로 그림을 그렸어요. 남편이 해직당하고 집에 쉴 때 홍익대에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딸 소원이가 그 프로그램 수강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남편은 유화를, 저는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 2주일씩 걸리지만 그림을 완성한 뒤 사진을 찍어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남편과의 기억들을 회상하기도 한다.

최 여사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려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재미를 느낀다”며 “저 뿐만 아니라 동생(최협)과 자녀들, 손자들도 손재주가 좋아 그림을 잘 그리는데 집안 내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여사의 모친 고(故) 조희순 여사는 전남 여중·고 1회로, 일본 동경여자대학에서 유학한 미술학도 출신이기도 하다. 전시에는 외손자 안호 애글리가 외할아버지 박권상 선생을 그린 연필소묘 작품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최 여사는 남편을 한없이 다정다감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남편은 사람이 부드럽고 다정했어. 결혼하고 남편이 석 달 만에 미국에 가게 됐는데 1년2개월 동안 200통의 편지를 보내왔죠.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매일 해외 출장 다니고, 동아일보 편집국장 할 때는 오밤중에 들어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70년대 박권상 선생은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동아일보 주영 특파원으로 런던에 파견됐다. 어느 날 갑자기 동아일보 편집국장에서 밀려난 것이다. 그때 온 가족이 함께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최 여사는 “박정희, 전두환 때문에 알파벳도 몰랐던 자녀들이 모두 두 영어를 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여사의 장녀 소희씨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박사



최규엽 작 '매산(梅山)'

를 마친 뒤 현재 미국 밴더빌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남 일평씨는 서울대를 나와 삼성전자연구소 상무, 파나소닉 부사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미국 하만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둘째 딸 소원씨는 옥스퍼드대학에서 영문학 석·박사를 마친 뒤 영국 옥스퍼드대학 영문과에서 일하고 있다. 막내 딸 소라씨는 연세대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을 나와 호주 캔버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 여사는 박권상 선생이 1960년도에 자신을 그려준 초상화를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도 함께 선보이고 있는 이 작품은 최 여사가 큰딸을 낳은 뒤에 고인이 그려줬다.

“아직도 남편이 그림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4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남편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말도 못해서 눈으로만 대화했죠. 순탄한 길을 포기하고 항상 힘겹게 살았던 남편이 그때 너무 불쌍해보였어요. 남편이 이 전시를 봐줄 것이라고 믿어요.”

한편 최 여사는 오는 6월 서울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문의 061-381-008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상하이 히말라야미술관 레지던시 참여작가 모집

광주시립미술관 17일까지...만 50세 이하 지역 출신자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중국 상하이 히말라야미술관 국제레지던시에 참여할 작가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13년 히말라야미술관과 교류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에는 김동아(한국화), 이정록(사진) 작가가 미술관 주가각 예술관 국제레지던시에 3개월 동안 참가했다.

미술관은 1차, 2차 각 1명씩 모두 2명의 작가를 선발하며, 선발된 작가에게

는 국제왕복항공료와 창작지원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선발된 작가는 오는 5~8월, 8~11월 히말라야미술관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하 광주지역 출신 작가로 영어 혹은 중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최종 선정자가 발표되는 오는 21일이다.

문의 062-613-715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도윤 작 '순환'

## 色の 악동들 몰려온다

청년작가 36명 소품전...갤러리아크 5월5일까지

현대미술은 다양한 장르와 기법, 재료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광주 지역 청년 작가들도 특유의 색과 조형 언어를 갖고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청년 작가들의 작품은 창의적이고 신선해 지역 미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갤러리아크는 오는 5월5일까지 청년 작가들을 초대해 '색(色)의 악동들'(Nifty boys of color)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위촉된 광주미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는 청년작가 36명의 소품들을 전시, 판매한다. 작품 가격은 25만원 내외다.

참여자 작가들은 강동호·고마음·김단비·김도윤·김동아·김동인·김민지·김영일·김윤영·김자이·김준표·김혁·노여운·려은·류세연·박다혜·박일광·박성안·박인



최미연 작 'space time'

선·배귀영·배수민·성혜림·송영학·송지운·신선운·안수현·양나희·양승이·염기준·여훈주·윤준성·이다예·이세현·장원석·정마음·최미연씨다. 문의 062-671-123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 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IPALG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